

94년 여름기말 자료집

동지의 환한 웃음이

조극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가보고 싶어. 안달장녀며 미추변관까지

---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산하
동부 지구 각 학교 흥여학생회 ---

(건국대, 경희대, 산업대, 광운대, 안양대 흥여학생회,
서종대 인문대 여학생부, 서울여대 사과대 여학생 소모임)

자료집 순서

- 1 - ① 93년의 기활의 평가
② 올해 기활의 의의와 목표
③ 올해의 준비 과정과 일정

- 2 - 이것만은 꼭 교양을 합시다.
(93년 서여대협 자료집 참조)
① 한국 사회의 매매준
② 기지촌의 실태
③ 주한미군의 문제 : 한국속의 미국 - 기지

- 3 - ① 지역 소개(동두천 다비타의 집)

- 4 - ① 기활대원 운영과 자세
② 하루 일과표와 생활 수칙
③ 놀이방에 대하여
④ 오후 프로그램에 대하여

- 5 - ① 하루 평가 일지와 아이들 상황 일지

1-① 93년 기활의 평가

I. 기지촌 활동에 대하여

90년 한 여대생의 자원 활동으로 시작된 기지촌 여성 연대 사업은 후원회 활동과 자원활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각 학교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방학을 이용한 '기지촌 활동'을 만들어냈다. 특히 92년부터 서여대협 차원으로 준비한 연대활동은 93년에 기활추진위원을 꾸리면서 조직적으로 행하는 등 큰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 올해에도 작년의 성과를 이어 서여대협 차원으로 준비위원을 꾸려서 의정부, 동두천 두레방과 다미타의 집으로 기지촌 활동을 하게 되었다.

II. 93년 기지촌 활동에 대한 평가

작년의 활동은 서여대협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것과 그만큼 더 많은 학교에서 참여했다는 성과를 남겼다. 이런 외형적 발전 이외에도 학생과 기지촌 여성이 서로 발전했다는 것과 '연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였다는 것, 교육 사업에서 연구팀이 꾸려져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연구성과를 남긴 점 등 여러가지 성과가 있다.

여기에서는 연대에 대한 인식, 조직적 준비, 준비활동(교양을 중심으로)과 본활동 등에 대해 우리가 올해 극복할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1) 연대에 대하여

"연대"란 우선 형식적으로 조직과 조직과의 연대, 내용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연대가 있다. 첫번째는 서로의 조직강화를 이루는 것이고, 두번째는 서로가 자기 삶의 주체로 서면서 변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는 기지촌활동이라는 민중연대사업을 통하여 서여대협이 강화되고 두레방, 다미타의 집이라는 조직이 지역에서 강화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지촌 활동을 하는 학생과 기지촌 여성, 기지촌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또한 기대하는 것이다.

이 때 연대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연대의 주체 서로가, 스스로를 주체로 새우고 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현실적 조건때문에 기지촌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을 주체로 새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먼저 그 방법들을 주동적으로 고민하고 나서야 한다. 상대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현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그렇게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상황 파악과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93년에는 이러한 현장에 대한 파악과 실제 본활동에 대한 지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지역상황을 들었을 때와 막상 활동할 때가 틀려진 적이 많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최대한 단체 사무실(우리는 다비타의 집)에 자주 가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쌓고 활동 형태를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대원들의 연대의식 수준이다.

직접 활동에 뛰어드는 이는 기활대원들인데 그 대원들이 기활을 한 순간의 봉사활동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큰 기대감에 젖어 있으면 일주일동안의 기지촌활동은 실망으로 남을 수도 있다. 자신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그 지역과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갖고 임해보자. 그렇다면 조국의 현신이 보일 것이다.

(2) 조직에 대하여

올해에도 각 학교와 지구, 그리고 서여대협 차원의 책임자를 세워 서여대협을 강화시키고 조직을 튼튼히 하는 체계를 세웠다. 작년의 문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7월 하순이 지나면서 중앙회의가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활동이 지도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교양과 준비 위주의 체계였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지구와 지역을 묶는 지역 편제가 아니라서 실제 지역 활동에 대한 총화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동지가 다비타의 집, 서지가 동두천 두레방, 남,북지가 의정부 두레방 식으로 지역과 지구를 묶어서 편제를 했다. 장기적으로 그 지역과 연대를 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달이라는 기활 기간 중에도 동지 모임을 계속하여 지역과 기활 상황을 총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일궈나가기로 하였다.

(3) 준비과정(교양)에 대하여

작년에 서여대협에서 가장 주력했던 부분이 바로 교양이다. 교양 준비팀에서 한국사회의 매매춘과 미·일의 제국주의 침략과 매매춘 문제,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육사업 역시 이론적 문제와 그 곳 상황에 대한 소개에 멈추고 실제 활동에 필요한 내용 교양은 거의 없이 학교별로 맡겨져 버렸다. 실제 활동교양과 기활대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교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활대원들이 교육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교양과 실제 활동이 연결되지 못한 잘못을 남기기도 하였다.

올해에는 작은 것이라도 기활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야 교육사업이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서 내용성있게 진행될 것이다. 서여대협 차원에서는 기활학교 등 커다란 교양을 준비하게 된다. 각 학교에서는 기활대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 하나를 알더라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관점을 동일해나가야 준비과정에서 본활동까지 흐름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지의 탄탄 웃음이

(4) 본활동에 대하여

작년에는 본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다비타의 집은 2번째 기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레방처럼 체제가 잘 되어 있지는 않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놀이방, 공부방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매일 평가를 해야만 올바른 총화와 매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놀이방 프로그램과 오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의의와 목표가 반드시 교양되어야 한다.

(5) 후속활동에 대하여

작년에는 이것이 조직적으로 고민되지 못하였다. 우선은 학교 차원의 후원활동이나 자원활동, 잦은 연락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지역은 아니지만 두레방 빵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후속모임을 결성하여 그 속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고민하면 좋을 것이다. 개척되지 않은 다비타의 집 같은 경우 후속활동과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1-② 올해 기활의 의의와 목표

(1) 기지촌 활동의 의의와 목표

1) **거침은 청년여학생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서로의 삶에 변화를 주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기활에 참여하여 기지촌 여성과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편견을 깨고 이 땅에서 억압 받고 고통 받는 민중의 현실을 느끼게 된다.

기지촌 여성들 또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연대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비타의 집에서는 기지촌 여성을 직접 만나본 기회는 별로 없으나 아이들을 통해서 기지촌을 바라볼 수 있다.

2) **거침은 지역운동의 기반을 넓히는 활동이다.**

고립되고 소외된 지역에서 기형적이고 기생적인 경제구조와 퇴폐문화로 인해 굴절된 삶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기지촌 여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지촌의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범죄의 온상인 미군기지 주변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고 인식을 바꿔

초구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3) 일상연대사업의 단소를 마련한다.

기활은 여름에 잠깐 하고 마는 활동이 아닌 일상적 연대활동을 통해서만 서로의 조직 강화를 이룰 수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후속활동을 고민해 보자.

(2) 서여대협의 목표

여학생운동과 민중연대 사업을 통해 한국사회 모순을 풀어나가는 각 주체로서 남고 서로의 삶을 변화 발전시켜 나간다.

사상 ; ① 미래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틀어준다.

② 식민지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 모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다.

③ 자주 통일 운동의 관점에서..

④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인식한다.

조직 ; ① 서여대협 강화, 지구 여대협 강화, 여학생회 강화,

② 지구와 지역, 운동본부와의 연대 강화

대중 ; ① 기활대원의 관점을 통일시키고 대중적으로 기활을 알려나간다.

(3) 동부지구 여대협의 목표

조직 ① 지구의 조직적인 짜임새와 활동으로 서여대협은 나의 조직이라는 인식을 높인다.

② 서여대협 동부지구 + 다비타의 집 + 동두천 지역과의 연대

대중 ① 교양을 받은 만큼 느끼고 느낀만큼 얻을 수 있다. 내실있는 교양으로 본활동과의 연결을 잘 하자. 기활대원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② 활동영역을 넓힌다. 지역주민을 만나는 자리를 시도해보자.

③ 후속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자.

(4) 각 학교의 목표

- 여학생회를 강화하고 학우들에게 기활을 알리는 계기.

총여 전통사업으로서 시작하고 다음 기활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한다.

- 여학생회 일꾼을 중심으로 사람을 남긴다.

- 연대의 관점에서 학교와 지구와 사람을 강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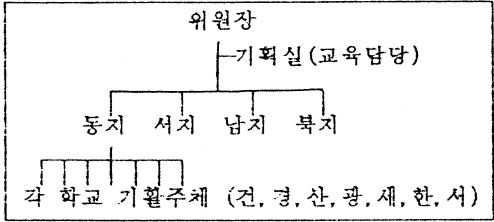
-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시도해 본다.

일반 학우들에게도 포괄적인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1-③ 올해의 준비과정과 일정

(1) 준비과정

- 6월 동지 기활 추진위 새움
- 6/17 동지 운영위에서
 기지촌 활동 공유
- 6/19 지구 주체 연석회의 1차 ;
 지구 상황 공유, 지역선정,
 연석회의의 수위논의,
 본활동의 의의 공유
- 6/20 동지 모임 2차(13일 팡, 1차(15일)는 한 학교만 참석)
 학교 상황 공유, 다비타의 집 상황과 작년 활동의 문제점 공유,
 연석회의의 중요성 공유
- 6/22 지구 주체 연석회의 2차 ; 기활학교 날짜와 교양 내용 확정.
 학교별 이월의 중요성 논의
- 6/22 동지 모임 3차 ; 작년 기활의 활동 영역별 평가와 의의 논의,
 올해 활동의 대략적 상을 잡음. 각 학교의 목표와 동지의 목표 논의.
 사전 답사 내용 만듬.
- 6/24 동두천 다비타의 집 사전답사 1차
 대략적인 활동내용 확정(성교육 폐기, 오후 프로그램 확정),
 놀이방에 대한 이야기, 지역에서 마을 잔치하는 것은 아직 힘들다.
- 6/24 동지 모임 4차 ; 답사 내용 보고, 학교별 일정 확정, 자료집 준비.
- 6/26 지구 주체 연석회의 3차 ; 서여대협의 기활의 의의와 목표,
 학교 주체교양, 기활학교의 교양 내용과 일정 확정,
 자료집 준비, 하루 기활 확정.
- 6/28 각 학교 주체 교양 ; <한국 사회의 매매춘>으로 세미나,
 기활대원의 자세 교양
- 6/29 작년에 다비타의 집에서 기활을 했던 경험자들 만나서 평가를 들음.
- 6/29,30 1차 기활학교(건국대 참여)
- 6/30 동지 모임 5차 ; 놀이방의 의의와 목표, 기활대원의 활동원칙,
 지역답사 때 논의할 것 공유, 자료집 맡은 것 책임.
- 7/1 다비타의 집 사전답사 2차 ; 클럽방문과 기지방문
 놀이방 시간 확정, 놀이방 아이들 상황 일지 받음.
 동두천 시민회의 방문 ; 매주 화요일 오후 기활대원 방문 확정.
- 7/5 동지 모임 6차 ; 답사 내용 보고, 놀이방 시간과 오후 프로그램 확정.
- 7/8 동지 모임 7차 ; 본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공유,
 활동을 마친 팀은 토요일에 다음 학교에게 이월해 줄 것과
 그 자리에 각 학교 주체가 참여하여 매주 평가 모임할 것을 결의.
- 7/13,14 2차 기활학교(경,산,광,새,한,서 참여)



(2) 일정

일정	다비타의 집(10명)
7/11~7/16	건국대
7/18~7/23	경희대(7인) + 산업대(3인)
7/25~7/30	광운대(6인) + 세종대(4인)
8/1~8/6	한양대(8인) + 서울여대(4인)

- ☞ 서여대협 1차 기활학교 : 6/29,30 이화여대 - 7월첫째,둘째 주 텀
- ☞ 서여대협 2차 기활학교 ; 7/13,14 경희대 - 7월셋째,넷째,8월첫째 주 텀

기활 학교 교양내용

첫날 / ① 기지촌 활동을 하는 의의
 ② 주한미군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 그 원인, 미군기지에 대해

둘째날 / ① 두레방의 역사와 기지촌 여성의 삶
 ② 두레방 프로그램(빵,놀이방..)의 의의 - 여성의 변화 사례
 기활의 의의와 기활대원의 자세, 클럽방문시 주의사항

③ 지구별로 지역상황 교양

- ☞ 기지촌 하루방문 ; 7/26(화) 10시 소요산 등반과 강연

하루 방문의 의의

이것은 숫자에 제한이 있는 기지촌 활동에 더 많은 학우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93년의 평가를 보면 많은 수가 한꺼번에 움직여서 등두천을 들썩이게 한 다던가 무리하게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을 방문하여 좀 산만하였다.

그러나 기지촌 하루 방문을 계획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지촌 실정에 맞게끔 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는 학생들의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수준으로는 대규모의 소요산등반과 기지주변 구경, 교양이나 소규모의 기지, 클럽방문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은 하루 기활대원들도 기활학교에 참가하여 교양을 듣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지촌 활동의 의의를 대략이나마 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순간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보다 소요산 등반과 미군 기지의 문제점에 대해 강연을 듣는 것으로 하였다.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 기활대원 전체 평가 모꼬지 ; 8/6,7일

2. 이것만은 꼭 고양을 잡시다. - ①

한국사회의 매매춘

사람이 사람위에 올라서는 계급사회가 만들어진 후, 여성억압은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며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여성에 대한 대우도 달라져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억압은 우리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제도에 짓눌려 살아가는 식민지적 상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억압 현실은 우리사회 전체의 명맥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과 그들이 아시아의 지배자로 부각시키는 일본의 영향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제국주의의 지배 속에서 더욱 깊이 뿌리내린 이중적 성윤리는 60만 국군을 비롯해 거의 모든 남성이 매매춘을 경험하고 즐기며 150만 여성이 매매춘에 뛰어든 현실까지도 만들어낼 정도에 이르렀다.

* 한국사회 매매춘의 실태 *

우리나라의 매매춘 조직은 서구사회와 비교해 볼때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번창해 있다. 아시아의 악명높은 사창가에 익숙한 외국인들 사이에서조차도 한국은 여성의 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로 유명한데 특히, 미아리의 텍사스타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 방콕의 팟퐁거리보다도 거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매매 지역은 미아리 텍사스타운 외에도 청량리 588, 서울역 부근, 용산역 일대, 새문상가 근처, 영등포 역 주변을 위시해서 지방도시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상업적인 성산업에 비하면 이러한 지역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70년대 들어서 접객서비스업 부분이 비대화되면서 새로운 직종인 기생, 호스티스, 맛사지걸, 안마사, 면도사 등에 여성이 대거 고용되어 간접매춘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미군을 상대로 한 성거래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기생 관광 성거래까지 합한다면 그 규모는 정말 거대해지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 4 - 5만, 관광기생 30만을 포함한 우리나라 매춘여성의 수는 120 -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생산직 여성노동자 90만을 훨씬 넘는 숫자로 젊은 여성 5명 가운데 1명꼴인 셈이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7) 한국사학 매매춘의 원인

1) 법으로는 금지, 길으로는 방관, 속으로는 묵성하는 정부의 정책

일제가 물러간 이후 우리정부가 매매춘 문제에 대해 취해온 태도는 한마디로 매매춘을 엄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냥 놔두는 처 하면서 뒤로는 부채질해 온 것이다. 정부가 1947년 11월 4일 과도정부 법률 제 7호로 '공창제도 폐지령'을 공포하고 61년 11월 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 4조 :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을 제정 공포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행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법은 매매춘행위를 불법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또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요도시 기타 필요한 곳에 설치, '요보호여자'상당, 지도, 보호, 직업알선, 귀가조치 등 선도사업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제 7조) 보호지도소는 법제성 30년이 넘은 지금도 아직 설립조차 되지 않고 법조문상의 기구로 남아있다. 또 매매춘여성을 대상으로 설립하도록 수정한 직업보도시설 (제 8조)도 현재 4개(한개는 중간 기술 훈련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부가 매매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책없는 모습만을 보인다면, 정부의 무책임과 관료행정만을 탓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매매춘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아직도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것임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국제관광협회를 통해 기생관광을 공공연히 선전하여 엔화를 벌어들이고, 교통부는 관광진흥정책에 따라 이 국제관광협회의 요청과에서 요청기생에게 사실상 매춘허가증인 '접객원 증명서'(보건증)를 발급하고, 경찰서 보안과장이나 군수가 기지춘여성들앞에 놓고 "당신들은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외화를 획득하는 애국자"라고 독려하면서 달리를 벌어들이고 주한미군의 성욕을 채워달라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근엄한 법 뒤에 가려진 정부의 모습이다.

매춘여성인 1955년 10만에서 1965년 33만으로 3배이상 증가하였고 현재는 120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고있다. 외국군에 힘을 빌어 같은 민족인 북한과 대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반민족적이고 외세의존적인 자세가 일제시대 정신대에 이어 한국여성의 성침탈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향락산업만 커가는 휘청이는 경제구조

향락 산업은 다양한 형태의 성향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와서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1988년말에 전국향락업소의 총수는 10만에 이르고 있다. 향락 산업으로는 유흥음식점, 이발소,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외관상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장내의 노동자들이지만 실상은 매춘여성과 다름없는 신종직업적인 산업형 매춘을 주로하게 된다. 따라서 향락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곧바로 매춘여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3) 여성노동자를 매춘으로 내모는 저임금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빼앗기는 계층은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이다. 남자임금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임금(전 노동자의 84%, 여

중지의 한한 웃음이

성노동자의 97.7%가 최저 임금수준에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 86년 한국 노동자 자료)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작취를 견디지 못한 여성노동자들은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매춘의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 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런 경향이 생겨났고, 빈곤 때문에 매춘을 생계수단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채 70년대 들어 집적서비스업 분야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대다수 여성들이 저임금에 시달려야하고 그나마 고학력 층은 취업자체가 어려워 여성이면 누구나 자아 실현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필요한 계기와 적절한 댓가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성의 상품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게끔 하는 것이다.

4) 이중적 성윤리 문제

남녀차별적인 이중적 성윤리는 매매춘이 계속되는 기본요인이다.

'매매춘은 필요악'이라는 논리는 계급사회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된 남성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적자를 얻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가 가져온 도덕 규범의 한단계 발전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과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논리이다. 이는 또 남성에게 여성보다 강한 성적욕구가 있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한 남성의 그 욕구로부터 일반여성의 정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매매춘을 정당화시킨다는 성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성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논리는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을 합리화하고 조장시키며 결국 오늘날 여성의 상품화를 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 논리는 광범위한 수요로 매춘여성을 공급하기 위해 인신매매 또는 목인, 조장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우리 민족 내부에서 근대화화 경제 발전이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구한말 시대부터, 이중적 성윤리 극복 과제는 과부 재가 허용, 공창제 폐지 요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족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운동이 일제와 미군정에게 탄압받으면서 이 요구 또한 짓밟혀졌다.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이중적 성윤리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외세로부터 유입된 향락적 성의식,

내실없는 경제개발이 낳은 금전만능주의

여성들이 매춘을 하게 되는 문화적 이유로는 앞서 지적한 이중적 성윤리의식과 함께 향락적 성의식과 금전만능주의, 한탕주의, 소비지향주의를 들 수 있다.

서구의 퇴폐적 성문화가 유입되고 내실없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금전 만능주의, 한탕주의, 소비지향주의가 생겨나 우리 문화를 잠식시키고 '성의식'을 문란케 하며 매춘에 대한 가치관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의식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최대의 물질적 보상을 얻는 방편으로 성을 파는 데 동의하게 만들며, 성을 도구화하는 직업을 도덕적 거부감이나 수치심없이 선택하게 만들어 여성의 매춘행위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사회풍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조 속에서 호기심이나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매춘의 길에 유인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남성들도 상품화되는 현상(HOST BAR)을 보이고 있어 왜곡된 성의식과 함께 날로 개인주의화 되고 퇴폐 향락화되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향락적 성의식은 또 한 편으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향락적 성의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3S정책(SEX, SPORTS, SCREEN)은 재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일제가 공창을 만드는 것도 이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80년 이후 전두환 정권도 광주항쟁 이후에 미스 유니버스대회를 유치하는등 이 정책을 통치방식으로 이용했다. 상업적 섹스의 대중화는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는 이기적 인간성을 조장하고 사회정치적의식을 둔화시킴으로써 사회 통제의 기재로 사용된 것이다.

(2) 여성들이 매춘을 하게 되는 동기

매춘에 접어들게 되는 여성들 중, 50% 정도는 인신매매때문이고 50%는 스스로 선택하는 여성들이다. 그러나 말이 좋아 '스스로'이지 이 '스스로 선택'이라는 말도 직접적인 강요가 아닌 가난, 성폭력에 의한 모멸감, 여성을 서비스업으로 몰아가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사회구조모순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인신매매는 시간과 장소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시장에 다니오는 가정주부까지도 강제로 감금하고 팔아먹는 인신매매인들의 조직력과 기동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이들 조직은 공식집계된 것만도 서울 주변에 100개, 전국적으로는 200개 조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거된 정도는 전체 인신매매조직에 비하면 극소수이다. 이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자들을 납치해서 폭행하고 여성을 사창가에 팔아넘기는데, 대부분 여성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매춘을 스스로 선택한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는 없다. 앞에서 조금 언급한대로 이들은 대부분 가출을 하게 되면서 매춘을 시작하는데, 가출의 원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제일 많고,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학대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다.

가출한 여성들 중 절대다수는 가출선후로 공장에 다니거나 다방에 다니면서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 속에 부딪힐 만큼 부딪히게 된다. 그런 경험 속에서 성경험이 있거나 결혼한 여성들은 '이왕 처녀가 아니니 논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체념하여 매춘에 들어선다. 순결 이태올리기 때문에 매춘에 내몰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매춘에 들어서는 여성들 중에는 농촌 출신보다 도시 출신이 많다(60, 70년대에 농촌 여성이 많이 매춘에 홀려들어간 상황은 이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도시출신 여성들이 더 많이 매춘에 들어서는 데는 성도덕이 혼란되기 쉽고, 유흥, 허영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도시의 조건이 이유가 되고 농촌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고 단속도 소홀한 것이 도시 출신 여성의 매춘화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활의 빈곤 등의 가정적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생활의 방편을 모색하다가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도시의 유흥에 빠져 매춘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지속되고 있다.

동지의 환한 웃음이

(3) 매춘여성의 생활

1) 매춘여성을 갈취하는 포주, 경찰

성산업에 한번 발을 들인 여성은 그 곳에서 영영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것은 윤락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포주, 뺨꾸, 기동서방, 인신매매인 등 거대한 조직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얼마 안되는 여성들의 돈에 기생하여 살아가며 여성들에게 큰 빚을 안기거나 여성이 탈출하면 다시 잡아와서 복행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사창가에 붙잡아 둔다.

이렇게 포주, 뺨꾸, 기동서방 등에게 이리저리 뜯기다보면 돈을 모으기는 커녕 생계유지가 힘들 정도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춘행위를 통해 벌 수 있는 돈은 그다지 많은 액수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병에 자주 걸리고 자신이 팔려오면서 빚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영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포주들 사이에는 여성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도 성행하는데 이것은 매춘여성들에게 빚을 안겨주고 영영 사창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근본원인이다.

또 하나 매춘여성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처구니없게도 경찰이다. 여성들은 포주와 같은 이에게는 거의 체념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포주들과 결탁하여 매춘여성들의 고향을 찌르는 경찰의 모습에는 큰 반감을 느끼고 있다. 인신매매가 이루어져도 워낙 거대한 조직이라 손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주고 받으며 포주들과 결탁된 경찰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매매춘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신매매단이나 포주와 같은 조직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탁한 경찰마저도 그들이 그곳에서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매춘여성의 건강

매춘 여성의 대부분이 하루에 아나리신(환각제)을 천원어치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용 이유에는 '신경질을 안 내고, 창피한 줄 모르게 하기 위해' '수치심이 없어진다' '나의 핸디캡 때문에' '속상해서 안먹으면 손님을 못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흡연량도 많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 초조감에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또한 매춘여성들은 대부분 성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성병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주 1회 성병검사를 실시하는데 남성들을 성병에서 예방하기 위한 검사일 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매춘여성에게는 검사의 강제를 펴지 않는데 기지촌의 여성들에게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게 하는데서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다.

3) 매춘여성들의 의식

매춘여성들은 일반 여성들과 똑같은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순결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다는 순결 이애올로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4) **외국인과 이루어지는 매매춘**

1) **외화벌이의 수단 - 기생관광**

관광산업을 밑피로 외화획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름아닌 기생관광이다. 기생관광은 윤락행위 방지법의 적용을 보류하고 합법성을 부여하는 허가증 성격의 '집객원 증명서'를 발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날로 번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광기생들은 집객원증을 발급받기 위해 교양강좌를 받아야만 하는데, 강사는 주로 저명인사나 교수들이고, 내용은 기생관광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하며, 외화를 버는 매매춘 행위는 애국행위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관광산업의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시행되는 기생관광은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의 파행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상품화하여 외세의 잔재인 정신대와 양공주를 재송하는 역할을 자행하며 매매춘 행위를 부추기게 되었다. 결국 기생관광은 관련 재벌과 이에 결탁한 외국인 자본에게 이득을 줄 뿐이며, 외화 획득을 불모로 제 민족 여성의 성까지 팔아먹는 정부의 반민중적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기생관광은 이렇게 관광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70년대를 전후로 급격히 번창하게 된다.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붐이 일고 일본이 73년 대만과 국교를 끊음으로서 대만으로 가던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이 <대대선 답>으로 우리나라를 찾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하기 전에 본국에서 '한국의 매력은 기생관광', '기생서비스가 만점인 남성 천국' 등과 같은 여행사의 기생관광 선전을 보고 온다는 것이다. 일본내에서 한국의 기생관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하며 한국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역시 이것을 기대하며 온다.

관광기생여성들은 일본인으로부터 민족적 멸시를 받으며 살아간다. 정부도 이들을 외화벌이에 내몰 뿐, 민족적 차원에서 보듬어주지 않는 것이다.

작년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는 '자국 방문의 해'라고 선정하였는데, 그 한해 동안만 매매춘 여성이 20만이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서울 600년, 한국 방문의 해'를 단순히 바라볼 수만은 없는데...

2) **주한 미군에 대한 선물 - 기지촌의 매매춘**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성침탈이 가장 극단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기지촌이다. 남한 정부가 세워진 후 미군은 주둔의 명분이 없어 물러났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철수 1년만에 유엔군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이승만 정권이 '영광스럽게' 넘겨주는 한국군 지휘권을 인수하였고, 1950년 7월 12일에는 「미군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대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미군 기지가 생겨나면서 그 주위에 기지촌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의 현실은 현대판 정신대를 연상하게 한다.

미군 1명당 1명꼴로 존재하는 기지촌 매매춘여성들은 윤금으로써 사건에서처럼 미국에 종속적인 정부로 인해 생명의 위협속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미군을 대상으로 생계를 잇게 된다. 높은 이들은 동족에게 충을 들이대는 미군

중지의 환한 웃음이

에게 '안보'를 구걸하며 민족의 여성들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기지촌의 실태 참조)

(5) 매매춘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1) 외국의 예

● 중국 상해

중국 상해는 전 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매매춘지역이었다.

일제와의 전쟁이 끝나고 중국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을 당시 상해시 당국은 매춘 여성들을 잘못된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여성들이 매매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정부의 주요한 임무로 삼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선 매춘여성의 갱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선과 재원을 마련하고 매춘여성이 유곽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포주의 방해들을 단속하였다.

교화소와 재원이 마련된 후에는 여성들을 집단 수용하고 포주를 처벌하였고, 젊은 여성 간부들을 교화소에 배치하였다. 이 간부들은 매춘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교육을 진행시켜 나갔다.

교화소에서의 교육내용은 다섯가지로 ① 매춘여성 스스로가 타락했다는 자포자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이 매춘을 하게 되기까지 사회적인 원인들을 인식하여 '나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② 성병을 치료한다. ③ 매춘을 더 하지 않도록 노동정신과 노동력을 기르고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하며 취업을 알선한다. ④ 결혼을 주선하여 여성들이 순결이대올로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안정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시 당국은 시민들 속에 매매춘은 이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고 식민지 반봉건 착취사회의 폐습이며 매춘여성은 그 피해자로서 다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10여년에 걸친 사업 끝에 상해의 매춘은 자취를 감추었고 지난 날의 매춘 여성들은 건강한 노동자로 책임있는 시민으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중국의 모습은 매매춘 문제를 극복하려면 정부당국이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더 효과적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수빅만에 주둔하던 미군기지는 AIDS가 심각한 지역이었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아내고 기지를 철수시켰다. 이 때 기지촌 여성단체는 미군부대를 굶게 내보내지 않고 혼혈아에 대해 미군 아버지를 찾아 양육비를 받아내는 투쟁을 벌여 승리하였다.

혼혈아에 대한 대안이 없는 현실은 여성들을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시 매춘에 나서게 하고, 그렇게 키워진 아이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미군에게도 책임지게 한 필리핀의 경우는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는 기지촌 매매춘 문제는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여성들의 힘으로 가장 심각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2)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정부가 먼저 각성을 하고 대춘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하고, 또한 대춘여성의 복지와 자립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개혁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② 미군 철수의 목소리는 워낙 안보논리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뿌리깊이 박혀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 당위적으로 군철수를 외치는 것 보다는 미군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와 한미행정협정의 애속성, 기지로 인해 생기는 환경오염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미군 주둔의 불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철수기한도 받아놓고 재협정도 거부하고...
곧 국민 하나 하나가 필리핀에서처럼 미군철수를 외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본단속의 사람들



두사람2

필리핀의 주한미군기지

1947년 3월 군사기지 밀집을 통해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를 최고, 최대를 자랑했던 수에즈만 공 해로 기지를 포함해서 모두 16곳을 9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으로써 필리핀 기지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기지전환운동은 필리핀인들은 필리핀 경제성장의 부진이 오면 식민지의 역사, 특히 미국에 의한 정치,경제적 착취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런 시각이 선 과 세도전에 있어 격리롭게 되었고 마침내 필리핀 상황에 의해 1990년 미해방영토를 기지로서의 기지 특례를 철폐하는가 하면 1991년에는 선거조약이라 불리는 기지전환협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p>①</p> <p>그대 나는 그들의 어떤 죄가운데 오만한 이 땅에서 살아났다.</p>	<p>그대 나는 그들의 어떤 죄가운데 오만한 이 땅에서 살아났다.</p>	<p>이러한 어떤 그들의 온 몸에서나 오만한 이 땅에서 살아났다.</p>	
<p>그들에게 내 이름, 내 누이를 팔아 나는 키워졌다.</p>	<p>그들에게 내 이름, 내 누이를 팔아 나는 키워졌다.</p>	<p>그들의 잔인함에 우리의 영혼, 땅, 공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p>	
<p>이 이혼 폭력과 인태의 한박의 거리를 갈으며 나는 자랐다.</p>	<p>이 이혼 폭력과 인태의 한박의 거리를 갈으며 나는 자랐다.</p>	<p>무엇보다도 거친 것은 용케받은 필리핀의 두권과 자신성을 되찾은 것이다.</p>	<p>말했다...</p>

2. 이것만은 꼭 교양을 읽시다. - ②

기지촌의 실태

1. 들어가면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수량화 하는 것은 계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한대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분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미국 군대가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그들의 군화발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헤아린다면 그 자체는 오히려 또 하나의 고통일 뿐이다. 디구나 주한 미군이 한반도의 남쪽에 무력으로 강점하면서 미치게 되는 총체적 영향에서 구체적 원인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의 미군기지가 해당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80여개의 기지가 있으며 46,000여의 군인 및 민간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00개가 지상군 기지이며 공군이 18개, 해군이 2개이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지의 총 면적은 약 5천만평으로 한국군 사용 기지면적의 약 2억 5천만평의 20%에 달하고 있다. 미군 주둔 비용은 연 28억 달러이다. 이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의 주한미군 편성 현황은 주둔군을 중심으로 주변에 번성하는 기지촌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주한 미군 부대 주변의 대표적 기지촌은 서울 중심부에 자리잡은 이태원, 동두천, 그 밖에도 의정부, 군산, 송정리, 대구, 송탄을 들 수 있다.

미군기지는 온갖 폭력과 성범죄의 온상으로 화한지 오래이며 양국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상징이다.

또한 미군기지의 대부분이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 도시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기지 주변지역은 건축제한에 묶이는 지역 주민의 불이익과 핵무기 배치, 주민 살상, AIDS전염의 진원지이다. 미군기지는 굴욕과 질병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2. 기지촌 여성의 생활

기지촌 여성들은 낮과 밤을 바꾸어야 하는 생활, 성병으로부터의 공포와 사회적 편견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순결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탈피하여 과거를 묻지않는 미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다. 실제로 현재로서는 기지촌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90% 이상이 건전한 노동의 경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사회 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기지촌 여성들은 모두 미군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나 그 속에서도 여러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크게 클럽에 다니는 여성과 국제결혼한 여성, 히패리로 나눌 수 있다.

1) 클럽에 다니는 여성들

클럽에 다니는 여성들은 대체로 클럽에 빚을 지고 있는 여성들이 이곳으로 팔려와 그 곳에 기거하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 유형은 클럽에 출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미군의 퇴근 시간인 저녁 6-7시에 시작되어 새벽 2-3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하면서 건강은 악화되고 클럽에서 파는 술값도 클럽에 모두 제공하고 나머지 20-50%를 여성이 갖게 된다. 또 땀주머니에 쥐야 하는 소개료와 하숙비를 내고 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쥐꼬리뿔에 남지 않게 된다. 게다가 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모멸적 대우와 인식도 또한 그들이 기지촌을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 개선을 위해 국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미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도 최하층의 사람들로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사람들이 많다. 또 싸움이 나더라도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줄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만다. 그리고 이들은 매주에 한 번씩性病검사를 받기 위해 검진소를 가야하는데 만약性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4일 동안 수용소에 들어가야 한다. 이 동안에는 생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라도 클럽생활을 중단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性病진료서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아픈든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들의 처지와 고립적이고 개인적으로 불안정한 그들의 생활 모습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미군의 손길을 기다린 채 기지촌에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포주가 되거나 혹은 땀주로 혹은 히패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2) 국제결혼한 여성들

기지촌의 매춘여성 문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 '매춘관광' 혹은 '기생관광'을 통한 외국인 상대의 매매춘 여성의 문제와 유사하다. 본질적 의미는 동일하지만 사회적, 민족적 모순이 결부되어 기지촌 매매춘 여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생관광의 경우 단기적인 반면, 기지촌 매매춘 여성의 대부분 장기채류의 군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심지어 계약결혼, 동거를 함으로서 '혼혈아'의 문제가 사회적, 민족적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생활방식의 상이함 그리고 한미불평등 조약에 기인한 각종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미군을 상대로하는 매매춘여성이 기지촌에 몰려든다. 여기에 그들

동지의 한한 웃음이

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의 결혼풍습은 과거가 있는 여자를 멸시하며 설령 결혼을 했다가도 과거가 드러나면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까닭에 지난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미군과의 결혼이 동족과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 편하고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에게 정절과 순결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사회적문화적 병리현상을 꼽는다. 기지촌에서는 보통 계약동거의 기간을 거쳐 한달에 약 3백여쌍, 일년에는 3천여쌍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겪는 언어차이, 생활풍습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와 미국민의 우리와 다른 결혼관념에 대부분 70-80%가 다시 이혼을 당한다.

이렇게 동족에게 버림받고 온갖 멸시와 천대속에서 하루를 참혹하게 살아가던 기지촌의 때때출 여성은 재생활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국제 결혼을 하지만 얼마못가 꿈과 계획은 무너지고 이들은 이국땅 미국에서 초차 술집, 환락가로 빠져들어 국내에서와 같이 가난과 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3) 히바티 여성들

나이가 들어 클럽에 나갈 수 없는 여성들 중에 직접 개별적으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이들을 히바티라고 한다. 클럽여성들은 패스가 있어 성병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패스를 받아 매춘행위를 하나 이들은 그것조차 가질 수 없어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미 건강은 나빠져 있고 건강한 노동으로의 길이 차단된 이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그래도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매춘행위를 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70이 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젊게 보이기 위해 긴 스트레이트 머리를 하고 양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미군을 받지만 아침이 되면 미군이 돈도 안 내고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기지촌 여성은 분단국가가 낳은 이 시대의 정신대이다. 팀 스피리트 훈련 기간 중 여성들은 미군을 따라 훈련장으로 이동을 한다. 포주에게 묶어 있어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은 심한 감시 속에 하루 10명 이상의 미군을 상대한다. 또한 대부분의 미군은 저질 재충으로 여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의 강간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변태, 퇴폐를 일삼고 있다. 또 미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해도 마땅히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미군을 만족시키기 위해 테크닉 교육을 받고 포르노 비디오키까지 보아야 하는 여성들의 처지는 비참하다. 이런 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돈을 벌려고 들어온 곳에서 빚만 짊어진 채 남는 것은 병과 빚뿐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미군과 국제결혼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의 사고는 클럽에 빚져 있는 여성을 돈을 주고 샀다는 소유의식이 강해 부부관계 또한 불평등하다.

3. 기지촌 형성으로 생기는 문제

1) 지역상황

주한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기지촌 미군들의 새로운 수요창출 때문에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여 하나의 촌락을 이루어 수십만명이 모여 살아가는데, 그곳 주민들은 미군을 통해 이식되는 퇴폐적인 양키 저질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가 분식당한 채 자녀교육은 물론, 생활방식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군에 의해 일반인, 매춘 여성, 부녀자, 아동의 성폭행, 폭행, 그리고 미군에게 의존하는 상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처벌의 권리는 한국에게 없는 것이다. 굴욕받고 억압받는 우리 민중의 아픔을 막아주는 정부는 우리 민중에게 없다. 이러한 기지촌의 아픔은 우리 민중 스스로 없애 나가야 한다.

2) 혼혈아 문제

기지촌에서는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난다. 1946년 이후 태어난 혼혈아의 숫자는 정확히 조사된 적은 없지만 약 7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자식의 출생을 초조히 기다리는 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미군과의 동거 관계가 깨지면서 부양능력이 없는 매춘 여성의 버림으로 대부분 해외입양이 되고 있다. 기지촌 지역의 혼혈아들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언어생활, 잦은 부모의 이동에 구타로 인한 정서불안과 애정어린 돌봄의 손질이 없어 행동이 난폭하고 한국아동과 접촉을 꺼려하고 말을 잘 못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빈민지역과 다름없는 월세, 전세 단칸방에서 클럽에 나가는 엄마, 미군으로 있는 아빠를 둔 혼혈아는 불안정한 생활이 파장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고아원, 해외입양 되어 나간다. 정부나 미군측의 기지촌 주변에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이들 혼혈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매매춘 여성과 혼혈아는 이땅 한반도에서 또 한번의 버림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4. 맺음말

여성이 당하고 있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는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제도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여성 해방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제국주의의 침탈에 의한 신식민지라는 상황, 거기에 민족분단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의해 자주적 발전이 차단되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여성 해방 운동의 이념과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대의 종속적인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야기된 산업형 매매춘에 의해 비로소 매매춘이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적 착취 관계를 벗어난 자립 경제의 구축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적 민족 통일을 위한 재반조건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이것만은 꼭 교양을 펴시다. - ③

한국 속의 미국 - 기지

1. 미군 주둔의 과정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민족의 자주성이 말살되고 온갖 착취와 굴욕이 자행 되던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의 기쁨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을 때 패전국인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명목으로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은 미군정.

그들은 일제가 차지하고 있던 주요시설을 독점하면서 조금씩 이 땅을 잡아 먹기 시작했다(45년 9월 미군 보병 제7사단이 용산일대의 조선사령부등 일제 군용시설을 접수했고 이곳이 현재 용산 미8군 기지이다).

그 이후 48년 8월 남한에 단독정부가 서자 더 이상 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잃어 버린 미국은 군정 2년 11개월만에 철수하지만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철수 2년이 못되어 유엔군의 이름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 이때 다급해진 이승만은 50년 7월 12일 외국군의 지위와 한국군의 작전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군에게 넘어가고 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과 함께 미군의 주둔이 영속화되면서 주한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기지촌이라는 기형적인 마을들이 생겨나게 된다.

2. 기지촌 미군으로 인한 피해

- 육군 : 동두천(제 2보병사단), 용산(미 8군)
- 해군 : 부산, 진해
- 공군 : 오산, 군산, 광주, 대구, 수원, 김포, 강릉

대표적으로 위의 미군기지를 들 수 있지만 한국의 군사적 연속성을 상징하는 기지는 현재 약 200여개에 달하며 그 면적은 한국군 사용 기지면적의 25%를 차지하는 5천만평에 달하고 있다. 또 이 곳에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송두리채 빼앗을 수 있는 핵무기가 1천여개나 기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도 앞으로 언젠까지 미국이 원하는 곳은 무상으로 무기한 기지로 내어 주어야 하고 기지운영 경비의 반액(연간 약 260만달러)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 미군이 한국정부에 내는 것이라고는 터무니 없이 싸게 제공하고 있는 전기료 뿐이다. - 이다.

또한 한반도내에 미국의 성조기가 휘날리는 미국의 땅, 바로 미군기지가 생기면서 이 땅의 주인인 기지주변의 주민들은 잔인하고 굴욕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게다가 미군의 성욕을 충족시켜 줄 매매춘여성들이 대거 유입, 기지촌에 집단 거주하게 되면서 기지촌은 민족의 자주성이 말살되는 것과 함께 성이 상품화되는 현상이 되어왔다.

3. 원인과 대안

그 외에도 하루에도 5건이 넘는 미군범죄, 환경오염, 예산 소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에도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고, 왜 그들은 한국을 차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미국인의 지상천국'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미군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반공과 안보 이데올로기 속에 사로잡혀 있고, 대미 예속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불평등한 관계는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법상에서도 정부당국의 미군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 예로 1990년 부터 1992년 8월까지 주한 미군 범죄자는 총 2,870명이었으나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38명(1.3%)에 불과했다. 이는 NATO의 52%, 일본(32%), 심지어 필리핀(2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측이 기소전에 주한미군 범죄자를 구속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렇듯 미군이 사고를 내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철차가 까다로워서, 진드리면 귀찮다는 이유로, 또한 법적으로도 한국이 죄를 벌할 수 없는 상대로는 앞으로도 미군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한미관계는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변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행행정협정상 불평등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위적인 미군 철수가 아닌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반미를 외칠 수 있으면, 미군이 우리 나라에 있으면서 끼치는 악영향 - 미군범죄, 정치·경제적 예속, 환경오염, 국가 예산 낭비 등을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미군 주둔의 불필요성을 느끼고 외치는 반미의 합성은 더욱 큰 힘이 되어 필리핀의 경우처럼 미군기지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미군기지 철수 기일을 받아내던지 오래 걸리고 더디더라도 희망과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되는 것은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국가를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말자.

3. 지역 소개

<다비타의 집>

이 곳은 동두천 제 2사단 CAMP CASEY 정문, 헬기장 바로 앞에 있다.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단체라 목사님이 주도를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이곳은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할 것을 놀이방과 공부방이다. 작년에는 기활을 처음 한 곳이라서 학생들의 준비가 미흡했고 목사님이 준비하신대로 따라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한 기활과 많은 차이가 났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학교는 평가도 안중고 힘들어 했던 곳이다.

그래서 올해, 이곳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더욱 필요로 한다. 일단 주체는 자주 찾아가 감을 익히고 친분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실제 활동에서 당황하지 않게 된다. 준비된 모습으로 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작년의 평가

- ① 목사님 ; 매춘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공장제도를 주장하는 등).
 기지촌 여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자주 말씀하신다.
 사전교양이 부족하여 저학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했다.
 과장과 자랑이 많으나 굉장히 열심이고 잘 해 주시려고 한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활의 의의를 잘 모르시는 듯하다.
- ② 프로그램 ; 성교육을 하는 의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클럽방문때 10명이 풀려다니 이목을 끄는 등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예상하지 못한 활동방식이었다.
 기지방문 때 볼 거 없으니 빨리 가자는 식으로 맥빠지게 하였다.
 여성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만날 수가 없는데, 국제결혼하고 안성된 분들과 친하고 어려운 여성과는 연계가 부족한 듯하다.
 지역 주민을 만날 기회는 놀이방 아이들의 학부모로서만 가능하다.
- ③ 놀이방 ; 기활대원들에게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놀이방 선생님에게서 교양이 안되고 다른 학교 기활대원과의 연락도 부족하였다.

- ④ 다비타의 집의 장점 ; 혼혈아를 통해서 기지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활동 방침

- ① 대원 전체가 지켜야 할 규율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 ② 놀이방에서의 아이들과의 규칙도 있어야 한다.
- ③ 자체적으로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해 보자(소풍, 공동식사)
- ③ 이 지역 상황에 맞는 후속활동을 고민하자. 후속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Q & A)

< 연대의식의 관점 >

Q 다비타의 집은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기활을 하는 의의와 맞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A 연대란 서로가 서로를 추동하고 지역단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과의 연대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변화·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목사님의 시각이 우리와는 틀린 점이 있으나 우리가 연대하는 것은 목사님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기지촌 여성과 기지촌의 아이들이다.
목사님과의 의견차이는 서로 좁혀 가면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Q 총여에서 왜 민중연대사업을 하고자 하는가
여학생운동과 민중연대사업으로서의 기지촌 활동의 의미는?

A? 현재 여성운동은 엘리트 위주이다.
여성운동에서의 기활은 기층 민중여성들과 만날 수 있는 민중연대사업이다
(A? ; 답변답지 못하다. 더 고민해보자)

Q 연대와 연대의식이란?

올해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서도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것들)

- (1)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보자
- (2) 기활하지 못하는 학우들도 볼 수 있도록 지역 슬라이드를 찍어서 상영하자.



4-① 기활대원 운영과 자세

1. 기지촌 활동에 인하는 자세

- 1) 기지촌 여성은 이 땅에서 가장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민중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주체와 주체의 만남으로, 일방적으로 계도하려 들지 말고, 그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고통 받는 민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기지촌 여성과의 만남에서 조급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일주일간의 활동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서둘러 성과를 남기고 싶어해서는 안된다. 신성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자.
- 3) 긴장된 자세이면서도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 인간적인 신뢰감이 중요하다.
- 4) 사전준비 활동에서 본활동까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2. 기지촌 활동의 운영

- 1) 배운만큼 알고 아는 만큼 느낀다.
교양에 잘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 기활학교 교양 + 학교 자체 교양 ; ① 기활의 의의와 자신의 목표 공유
② 한국 사회 매매춘 ③ 기지촌과 미국 ④ 지역 소개
⑤ 본활동의 의의 ⑥ 프로그램과 실무준비

☞ 교양에서 이것을 이야기해 보자 ☜

- 대원들이 '기활을 왜 가려고 하는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하자.
- 교양 전과 기활 후의 대원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얘기 해보자
- 기활대원이 무엇을 얻고 기지촌 여성들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자 => 장기적으로 희망을 준다. 여성들의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갖자.

- 2) 반드시 매일매일 하루를 평가해야 한다. (기활일지와 아이들에 대해 작성)
- 3) 마지막(다음 학교 이월과 전체 평가 모꼬지)까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인다.
- 4) 후속작업등 책임있는 활동을 하자.

4-② 하루 일과표와 생활수칙

< 하루 일과표 >

	월	화	수	목	금	토
09:30	도착과 인사, 하루 점검					07:00 기상
10:00	놀이방					08:00 아침식사 및 청소
18:00	OT(목사님, 놀이방 선생님)	지역단체 방문 (시민회의)	기지 방문	어머니들과 공동 식사	18:00~ 클럽방문의의공유 22:00~ 클럽방문, 평가	09:30 목사님과 평가 10:20 서울로 출발 12:30 다음 주 학교로 가서 이월 및 전체 평가
20:00	일지쓰기, 평가					15:00 귀가
21:00	귀가					

표 16

< 주의 사항 >

- 이것은 출퇴근을 기본으로 잔 것입니다.
- 숙식하는 학교의 경우는 자재 내에서 오전 기상시간과 21시 이후 오후 자재 교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면 전체 일정을 여유있게 하셔도 됩니다.
- 학교 주체는 기활 전 주에 반드시 하루 기활을 하여 감을 익히도록 합니다.
-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다음 학교에서 이월을 해야 하니 시간을 맞춰서 빨리 행동해 주세요.

기합대원 생활 수칙

- 1) 아침 조깅과 하루 평가를 반드시 한다.
- 2) 시간약속을 잘 지킨다.
- 3) 서로 지지치 않게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4-③ 놀이방에 대하여.

1. 기지촌 아이들의 현실

하루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다 보면 기활을 온 의의도 있어버리고 내가 탁아활동을 온 것인지 기활을 온 것인지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지촌에서 접해한 문제인 혼혈아, 지역주민의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편견이나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만 더 눈 돌려보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나갈수록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1) 기지촌의 아이들

혼혈 아이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국제결혼한 여성과 미군이 함께 사는 경우인데 이 때 아이는 “미국의 아이”로만 자라는 문제가 있다. 미군 아파와 한국엄마의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아이 역시 한국의 것을 부정하고 나아가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결국 한국엄마를 소외시키는 가족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 혼혈아는 아파가 엄마를 묶어 놓고 혁대로 때려도 팔짱만 끼고 구경하는가 하면 엄마가 영어를 잘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외국인 학교에서 받은 영어 동신문을 내밀며 읽어보라고 했다는 일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군은 미국에서도 하층에 속해 소외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에게 제대로 사랑을 줄 수가 없다고 한다.

두번째는 미군이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엄마하고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이 여성들은 아이를 혼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매때춘을 하게 된다. 이때 월세방 하나에서 매때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가 그 것을 보고 자라나고 자위행위를 하거나 상관계를 맺는 흉내를 내는 등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또 여성들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떨 때는 심한 구타와 욕설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잘못된 모습에 한없이 너그럽게 대한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올바른 자아 형성을 할 수 없게 된다.

2) 나서는 문제

또한 우리 사회에서 혼혈아를 무시하는 풍조는 이들이 올바르게 살 수 없도록 하고 입장을 결심하게 하지만 입양이 되어도 일꾼으로 전락하거나 그 사회에서도 차별을 받고 살아가기가 일쑤이다. 또한 아이를 보낸 엄마들은 매일 술과 울음으로 하루를 보내기가 일쑤다. 이렇게 기지촌과 혼혈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혼혈아 뿐만 아니라 기지촌 지역 상인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저질스런 문화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미국의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는 아이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또한 미군에 의한 어린이 성폭행이나 강간의 위험이 매우 높다.

가장 큰 문제는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다.

2. 놀이방의 의의

놀이방은 기지촌 지역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자랄 수 없는 상황 속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치관 형성의 식에 교사들의 위치는 중요하다. 교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 교육문제로 힘겨워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더해주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부모들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다.

기지촌 아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심각하고 기지촌 지역운동 단체에서 놀이방은 너무나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반쪽 미국인으로만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을 배우게 하며 자기 스스로도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하며 엄마를 무시하지 않게 된다. 기활을수행할 때 그저 아이들과 놀아주는 역할로만 축소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한다.

3. 본학 등으로서의 놀이방

1) 놀이방의 목표

①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게 한다.**
서로간에 정성스런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들끼리 높임말을 쓰고 아이들에게도 높임말을 쓴다.)

② **평등의식을 기른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편애하지 않고 미묘한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하도록 한다.

③ **민족의식을 기른다.**
한국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④ **공동체의식을 기른다.**
나눠쓰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자.

3) 놀이방에서의 기획대연의 수칙

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② **아이들에게 배워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이들의 모습과 생활 그리고 말을 통해 기지촌의 문제를 더욱 가슴아프게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의 모습, 말 하나에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기울이며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등지의 현한 웃음이

- ③ **아이들도 인간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선생님들끼리도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고,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는다.
- ④ **고사들이 일관성있는 태도로 대하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착한 일을 한 아이에게는 칭찬을 하고 나쁜 일을 한 아이에게는 엄하게 야단을 쳐야 한다. 이 때는 말로서 해결하나 벌을 세우기도 한다. 가능하면 벌을 준 선생님이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고 다른 선생님이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 ⑤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되도록이면 칭찬의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아이 자신이 발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 ⑥ **아이들이 피복색에 대한 편견을 깨고 오히려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3) <다비타의 집> 놀이방

다비타의 집은 혼혈아도 많이 있고 한국인의 아이들도 많이 있다.
한국인의 아이는 대부분 결혼가정이 많고 국민학교 전의 아이는 4세에서 7세까지 23명 정도가 있고, 방학때면 국민학교 아이들도 많이 놀러온다.

① 프로그램

- VTR은 폭력물이나 공상과학을 제외하고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한다.
- 아이들이 서로 나눠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간식을 세심하게 우리 음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아이들이 공동작업, 노래부르고 춤추기, 구연동화, 가면만들기 등을 좋아함.
- 놀이방과 공부방(국민학생용-방학숙제 도와주기)을 분리하자.
-> 공부방은 엄한 선생님이 맡으세요.

② 주의사항

- 너무 어리숙하게 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신감있게 한다.
- 싸울 때 거칠게 싸우니까 빨리 중재를 잘 해야 한다.(공평해야 한다.)
- 선생님들의 언어와 말투를 조심해야 한다.(가끔 욕하는 선생님도 있다나..)
- 벌주고 상주기 ; 자기가 한 것을 발표하게 하고 칭찬을 많이 하자.
 밥 당번 시키는 것이 상이다.
- 영어쓰면 고치도록 한다.(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함)
- 음식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하자.(#)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4) 놀이방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10:00~11:10	등원 및 자유놀이					
11:10~11:20	정리정돈, 출석					
11:20~11:30	예배, 찬양과 율동					
아침체조						
11:30~11:50	노래와 율동①	노래와 율동②	노래와 율동③	노래와 율동④	노래와 율동⑤	
11:50~12:00	동화 감상①	동화 감상②	동화 감상③	동화 감상④	동화 감상⑤	
12:00~12:30	점심 식사					
12:30~13:30	바깥 놀이				바깥놀이	
13:30~13:40	노래나,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노래나...	
13:40~14:30	그림,만들기①	VTR상영	그림,만들기② 공동작업	< 소풍 > 프로그램과 간식 준비. 어머니들 초대하는 공동 식사와 프로그램 준비	그림,만들기③	
14:30~15:30	간식시간①	간식②	간식③		간식⑤	
뛰어 놀기					뛰어놀기	
15:30~15:40	노래나,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노래나.....	
15:40~16:30	그림,만들기④	그림,만들기⑤	그림,만들기⑥		그림,만들기⑦ 공동작업	
16:30~17:00	저녁 식사				저녁 식사	
17:00~17:20	정리, 귀가준비				정리, 귀가준비	
17:20~18:00	대려다주고 오기, 오후 프로그램 준비				대려다 주기	

주의사항 ; 월 오전 - 놀이방 선생님이 함께 아이들을 소개시켜 주신다.
 노래, 동화, 간식, 그림, 만들기(①~④⑤⑦) 등은 숫자 이상으로 준비하기
 토요일 12:30에는 다음 학교로 이월해야 하니 시간을 지켜주세요.

5) 아이들의 상황

동지의 원한 웃음이

이름	가정환경과 성격	특기 사항
정소영 (90.7.19) 5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아빠,여동생(4세) · 사회성 발달이 다소 늦은 편이고 다른 아이들과 놀이에 잘 어울리지 못함. · 친근감을 갖고 대하면 금세 가까워질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이진광 (90.3.14) 5세.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아빠,형(이진우;8세) · 순하고 명랑한 성격 · 질문이 많고 말을 조리있게 하고 예의가 바름. · 사회성이 원만하며 놀이방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지는 않지만 활동에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세요.
오주연 (89.12.18) 6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아빠,언니(오주용;7세) ·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심. · 다른 사람들 일에 관심이 많고 고집 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현과 싸움을 자주 하니 둘의 중재를 잘 해야 함.
오주용 (88.7.20) 7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주연의 언니 ·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다. · 엘리사와 단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아이들을 꼬집지 않도록 주의주세요
츄리사 (88.6.1) 7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아빠,오빠(엔투완;9세), 여동생(르반;6세) · 소심한 성격이고 자아 형성이 원만치 않음. ·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모방함. · 격려가 많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받기 위해 토라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모르는 척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다독거리며 끝면 된다.
르반 (89.8.25) 6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츄리사 동생 · 밝고 명랑, 활발한 성격으로 개구장이. · 불임성이 있고 성이 많음. (귀염성이 많아 정이 흠뻑 들거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니 츄리사와는 다른 성격으로, 츄리사 앞에서 절대로 떼어하면 안된다.
유현진 (91.1.8) 4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아빠,오빠(준용;9세) · 차분하고 얌전함 ·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밝은 성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량이 적은 편이므로 밥을 적게 주세요.
남미란 (89.6.6) 6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아빠,여동생(해란;5세) · 차분하고 순종적임. · 사회성이 잘 발달되었고 언어발달도 보통 이상. · 정리 정돈을 잘 함.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이름	가족사항 및 성격	특기사항
칼린 (88.12.8) 7세. 여	· 엄마(42세),아빠(미국 민간인;42세), 오빠(18세,16세),남동생(1세) · 차분한 성격, 다소 어두운 면이 있음.	
위스덤 (89.12.18) 6세. 남	· 엄마,아빠(군인),누나(델리아;7세) ·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말이 적고 자기 표현에 소심함. · 한국말은 거의 다 알아듣고 발함	· 머리 오른쪽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선천적인 장애로 상처가 나면 위험합니다.
델리아 7세. 여	· 위스덤 누나임. · 조용,차분한 성격 · Liberty School 유치원 과정 재학중.	· 말수가 적지만 귀 기울여 들으면 잘 이야기함.
캐빈 (90.3.9) 5세. 남	· 엄마,아빠(군인),여동생(캐트린 3세) · 활동량이 많고 범위도 넓은 개구장이. · 평량하고 활발한 성격이지만 겁이 많고, 정의감이 있어 다른 아이들을 대신 혼내 주길 잘함.	
유소향 (88.10.6) 7세. 여	· 엄마,아빠(노동),동생(4개월),할머니 · 어릴 때 뇌수종을 앓아 지능과 신체 기능이 떨어짐. · 아이들이 거칠게 대하지는 않지만 넘어지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 주세요.	· 용변을 혼자 못함. · 식사는 스스로 잘 합니다. · 약은 점심식사 후 꼭 먹여 주세요.
엔토니 (89.2.7) 6세. 남	· 엄마,아빠(군인) · 몸이 허약한 체질임. · 한국말을 잘 못한다.	· 위가 약해 소화불량에 잘 걸리니,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 억지로 먹이지 말 것
안소라 7세. 여	· 아빠,할아버지,삼촌,동생(혜진) · 엄마의 가출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함.	· 아이다운 순수함이 상처받아 다소 어두운 편임.
안혜진 6세. 여	· 소라 동생 · 차분한 성격	· 잘 울지만 울음이 길게 가지 않도록 잘 얼려주세요.
박소현 (90.11.28) 5세. 여	· 엄마(이혼 후 한국인과 재혼;24세),아빠,동생(재환;2세),스테파니로 불리기도...? ·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있음. · 혼자 먼곳까지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다	· 고집이 세지만, 스스로 사할 시간을 주면 금세 풀림. · 혼자 멀리 가지 않도록 주의.

동지의 한한 웃음이

이름	가족사항 및 성격	특기 사항
마크 4세.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이혼상태)와 떨어져 교회 사택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봄 ·기관지가 약해 호흡에 약간 지장 있음 ·우울증이 조금 있고 거칠고 소유욕이 강해 장난감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잘 다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는 주어진 양을 다할 수 있도록 ·소변을 볼 때 동행해 주시고 가끔 주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전사무엘 (90.1.11) 5세.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사님 아들,엄마,동생(하리;6개월,여) ·이해력이 있고 차분한 성격이나 겁이 많고 소심한 편. ·말이 조금 늦고 사회성이 낮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쉽게 접근 않고, 낮은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있으나 친근감을 갖도록 유도 하세요.
유용현 (90.1.4) 5세.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아빠,누나(유니나;7세) ·골목대장 기질이 있는 씩씩하고 명랑한 개구장이임. 활동적이나 다소 전투적임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특히 여자아이들)에게 강하고 울음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과 자주 싸움을 함. 무섭게 인상셔도 겁먹지 마시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세요.
김미희 (90.3.14) 5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아빠,오빠(용호;8세),언니(미나;7세) ·찬찬하고 순종적임. ·울음이 길지만 잘 알려주면 금세 그침. ·엄지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있으니 주의를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밥을 아주 천천히 먹지만 혼자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밥을 조금만 주세요)
엘리사 (89.10.5) 6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 아빠 없음. 할머니,할아버지. ·정이 많아서 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잘 돌봐줌(유소향을 잘 챙겨주고 화장실도 함께 감) ·관심을 받기위해 잘 트라짐 - 화가 나면 책상이나 의자를 들어올림.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 리더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라졌을 때 스킨쉽을 많이 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금세 풀림. ·화를 낼 경우 분을 가라앉힐수 있도록 모퉁이에 세워놓고 중재하세요.
홍정빈 (90.7.21) 5세.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아빠,동생(정균;4개월) ·소극적이고 말이 적은 편이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 ·다른 친구들을 따라서 놀이를 함. ·용변에 대한 의사를 가끔 확인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른쪽 다리를 한 달 가랑 기브스를 했었기 때문에 잘 뛰거나 걷지 못하므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4-④ **오후 프로그램에 대하여.**

월	화	수	목	금	토
OT(목사님, 놀이방 선생님)	지역단체 방문 (시민회)	기지 방문	어머니들과 공동식사	클럽방문	다음 학교에 이월 교양

월 ; 목사님과 OT, 놀이방 선생님께서 아이들 상황에 대해 듣기.

- 지역 상황과 아이들에 대해 들으면서 기지촌 지역을 알아본다.
질문할 사항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자.

화 ; 동두천 지역단체(시민회) 방문

- 동두천 시민회는 90년에 세워져서 4년째가 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시민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시민의 민주적 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러가지 시민을 위한 강좌를 준비하며, 동두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위원회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역 기반이 기지촌이 밀집해 있는 동두천이다 보니까 미군문제, 기지촌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곳은 미군범죄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일주일동안 다비타의 집에만 머물러 있던 시야의 한계에서 벗어나 동두천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다른 분들을 만나 지역의 문제점과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루에도 5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고 동두천에서 그 중의 2건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동두천 하면 기지촌을 떠올리고 안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깊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다보면 동두천에서 생기는 문제는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조국의 아픔이고 전 민족이 느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민회 분들은 학교와 단체에서 많이 찾아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공유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수 ; 기지방문

- 미군부대방문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며 실제로 누리고 있는 여러 혜택과 그것의 부당함을 잘 볼 수 있는 활동이다. 버스를 타고 30여분간을 들

등지의 환한 웃음이

아도 끝이 안 보이는 기지, 군복무 중이라기보다는 휴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군들... 동두천 Camp Casey는 한미야전 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생각만큼 자세하게 많이 못 볼 수도 있다. 아직까지 연대수준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만큼 사전 의의공유를 잘 하고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평가를 합시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미군 주둔의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미양요」 1,2권)

목 ; 소풍과 어머니들과의 공동식사

- 지역 여성들을 만날 수 없는 다비타의 집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통한 어머니들과의 만남이 처음 시도되는 상황입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을 따중하고 배웅할 때 어머님들을 초대하고 함께하는 게임이나 아이들의 발표회 등 소풍과 공동식사 때 할 프로그램을 준비해 봅시다. 처음이라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음 ; 클럽방문

-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 주변의 클럽은 '내국인 출입금지', '미군전용클럽'이라는 뜻말이 붙어있다. 내 나라 땅에서 통제당하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겠지만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국여성들은 통제없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군에게 있어서 한국여성은 성적 분출구이기 때문에 마음껏 와서 분위기 좀 띄워달라는 것일까? 실제로 서울에 사는 여성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주말이면 몇십명씩 와서 미군들과 놀기도 한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곳이 가장 고통받는 민중인 기지촌 언니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터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방문하는 금요일 저녁은 미군들의 주말이 시작되는 날로 클럽가가 미군들로 가득 찬다. 클럽임구에서부터 미군들과 여성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낯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지켜 보며 클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그저 무겁기만 하가고 침울하게 앉아 있다가 오면 클럽방문한 성과가 안 느껴진다. 미군들의 보무도 당당한 모습, 그 속에서 도리어 위축되는 우리들, 야하게 춤을 추지만 그속엔 서글픔이 서려있는 기지촌 언니의 표정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능하면 술을 파는 아줌마들과 볼 수 있는데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클럽방문을 기지촌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고민해 보는 기회로 삼자.

작년에 클럽방문 때는 10명이 함께 다니면서 남의 이목을 끌어버리고, 목사님이 기활은 학생이라고 말해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활의 목표와 목사님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팀별로 당시 상황에 맞게 목사님과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하지만 가능하면 처음에는 목사님이 해주시는대로 들어갔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가 지지층 여성과 대화를 나눈 후(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재치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끼리 3,4명씩 흩어져서 더 돌아나드는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는 완전히 우리 맘대로 하기도 힘들고, 현재 조건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전 의의공유와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빨리 자 버리면 더 남는 것이 없을테니까요.

토 ; 다음 학교에 이월해 주기

작년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별로 이월이 안되서 놀이방 프로그램도 겹치고 고쳐야 할 사항이 나와도 빨리 대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체 기활대원이 기활을 책임지고 이월까지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월 내용은 아이들 상황(선생님을 확정하기), 놀이방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 자신이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 평가 때 무엇을 이월해 줄 것인지 미리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구와 서여대협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 모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동지 모임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 활동에서의 지도와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해 1주일에 한번씩 학교 주체 모임을 하여 다음 학교에 이월하는 것을 함께 보고 평가를 하고, 한달동안 발전하는 기활을 하기 위해 전체 흐름을 각 학교 주체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는 각 학교 주체들을 믿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투를 빌면서~~~~~



동지의 환한 웃음이

4-⑤ 하루 평가 일지와 아이들 상황 일지

< 하루 평가 일지 >

월 일 요일 ()요일 .	
오늘의 목표	
놀이방에서 어땠나요?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것만은 고쳐야겠다.
내일은 어떻게...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 아이들 상황 일지 > 현 선생님이 새 명석이라고 가정.

째 날

이름			
오늘은 이렇게 지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동지의 한한 웃음이

< 하루 평가 일지 >

월	일	요일 ()	제날
오늘의 목표			
놀이방에서 어땠나요?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것만은 고쳐야겠다.	
내일은 어떻게...			

조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 아이들 상황 일지 > 현 선생님이 세 명씩이라고 가정.

째날

이름			
오늘은 이렇게 지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동지의 탄탄 웃음이

< 하루 평가 일지 >

월	일	요일 ()	제날
오늘의 목표			
놀이방에서 어땠나요?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것만은 고쳐야겠다.	
내일은 어떻게...			

< 아이들 상황 일지 > **현** 선생님이 세 명씩이라고 가정.

째날

이름			
오늘은 이렇게 지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동지의 탄찬 웃음이

< 하루 평가 일지 >

월	일	요일 ()	계날
오늘의 목표			
놀이방에서 어땠나요?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것만은 고쳐야겠다.	
내일은 어떻게...			

< 아이들 상황 일지 > 현 선생님이 세 명씩이라고 가정.

째날

이름			
오늘은 이렇게 지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동지의 한찬 웃음이

< 하루 평가 일지 >

월	일	요일 ()	제날
오늘의 목표			
놀이방에서 어땠나요?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것만은 고쳐야겠다.	
내일은 어떻게...			

< 아이들 상황 일지 > 현 선생님이 세 명씩이라고 가정.

제날

이름			
오늘은 이렇게 지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